스위스 도시 속 초록 휴식.

도시 여행하다 쉬어가며 피크닉 즐길 초록 공간

호수와 연못, 강가의 초록 공원들
흐드러진 꽃밭에서 피크닉
분주한 도시 일상과 그림 같은 자연이 공존하는 스위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시간

초록 초록한 자연으로 둘러싸인 트렌디한 동네는 스위스 도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도시 여행을 하다가 쉬어가기 안성맞춤이다. 초록의 공간에 나무 그늘과 야생화를 찾아볼 수 있고, 심지어 생물 다양성까지도 발견해 볼 수 있는 곳이다. 분주한 도시 일상과 그림 같은 자연 체험이 나란히 공존하고 있는 스위스에 흔한 도시 풍경이다. 슈퍼에서 간식거리를 사서 피크닉을 즐기기도 좋다. 지속가능한 여행이 거창할 필요는 없다. 이런 초록 공간에서 탄소를 배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 말이다.

1. 루체른(Luzern)의 우프쉐티(Ufschötti)
루체른 기차역에서 코 닿을 거리에 루체른의 초록 공간이 있다. 호숫가에 펼쳐진 광활한 녹지로, 루체른 시민의 절반 정도가 여름 해안을 찾으러 발걸음을 향하는 곳이다. 호숫가를 따라 200m 길이의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데, 바다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수영이나 선탠을 즐기는 이들도 많다. 큼직한 나무는 널찍한 그늘을 선사해 준다. 축구나 원반던지기, 바비큐를 즐기기도 한다. 여름에는 우프쉐티 키오스크나 비치 바에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한다. 샤워 시설과 화장실도 잘 갖췄다.

이 밖에도 루체른 최대의 공원일뿐만 아니라 루체른 음악 학교가 있던 곳이기도 한 곳인 **드라이린덴(Dreilinden) 공원**, 호숫가 바로 옆에 자리한 **리하르트 바그너 박물관 공원**, 언제나 행사가 벌어지는 신시가지 한복판의 공원, **뵈겔리개르틀리(Vögeligärtli) 공원**을 찾아봐야 한다.

2. 취리히(Zürich)의 리터파크(Rieterpark)
도시와 이렇게 가까우면서도 소음과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취리히 최대의 도심 공원은 고요, 휴식, 다채로운 식물로 꽉 찼다. 70,000m2 나 되는 공간은 취리히 근처의 엥에(Enge) 지구에 있다. 공원과 같은 이름의 박물관이 들어선 빌라도 아름답다. 1855 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빈터투어(Winterthur) 출신의 산업가 리터 가문이 19 세기 후반에 소유하던 것으로 1945 년에 취리히 시가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공원의 나무 몇 그루는 당시의 것으로, 150 년이 넘는 수령을 과시한다. 맑은 날에는 알프스도 보인다.

그 밖에도 취리히 공원 중에서도 보석으로 꼽히는 **벨부아파크(Belvoirpark)**, 호숫가에 자리한 분주함, 평화, 고요가 뒤섞인 **차이니스 가든**, 도시 한복판의 그림 같은 오아시스 격인 **올드 보태니컬 가든**, 취리히 서부 지역의 초록 심장부인 **요세프비제(Josefwiese)**가 눈에 띈다.

3. 툰(Thun)의 오버호펜(Oberhofen) 성
툰 호수에 있는 아름다운 고성을 거닐며 툰 호수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낭만적인 고성에는 박물관이 들어서 있는데, 과거에 이 성에서 살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고성 타워 위에서는 툰 호수와 베르네제 오버란트의 웅장한 명봉이 한눈에 들어온다. 정원에는 다양한 빛깔의 꽃과 희귀종 수목이 심어져 있다. 호숫가 산책로를 걸어봐도 좋고, 유람선으로 찾아가 봐도 좋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이 외에도 인터라켄(Interlaken) 한복판의 초록 들판에서 화려한 꽃의 디스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쿠어살(Kursaal) 공원**, 툰 호수와 알프스의 풍경을 우아하게 즐길 수 있는 **샤다우(Schadau) 성**, 인터라켄의 영국 정원과 수도원까지 이어지다 회헤마테(Höhematte) 들판을 돌아 아레(Aare) 강을 건너 운터젠(Unterseen) 시청 광장에서 마무리하는 **인터라켄 산책코스(Interlaken walkabout)**도 눈여겨볼 만하다.

4. 생갈렌(St. Gallen)의 드라이 바이에렌(Drei Weieren)
생갈렌 도심 위 언덕에 조성된 인공 연못으로, 여름에는 수영을,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 초록 들판과 자연 속 야외 풀장이 그림 같다. '세 개의 연못'이라는 뜻의 드라이 바이에렌은 생갈렌 주민들이 쉬기 위해 즐겨 찾는 곳이다. 원래는 수도원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연못으로, 아르누보 양식의 수영장 건물이 아름다워 인기를 얻었다.

그 외에도 생갈렌 최대의 녹지로 꼽히는 **슈타트파크 생갈렌(Stadtpark St. Gallen)**과, 도심 한복판에서 굉음을 내며 쏟아져 내리는 물이 시원한 풍경을 만들어 내는 **묄레넨(Mülenen) 계곡**, 6,000 여 평에 조성된 8,000 종류의 식물을 찾아볼 수 있는 **생갈렌 식물원**에서 초록 휴식을 가질 수 있다.

5. 로잔(Lausanne)의 보태니컬 가든
몽트리옹(Montriond) 언덕, 밀란 공원(Milan Park)에 있는 식물 정원은 도심의 분주함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 세계 약 6,000 종류의 식물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돌계단을 오르면 레만 호수와 프랑스 알프스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그 외에도 호숫가 선착장인 **우시(Ouchy) 지구의 산책**로, 로잔의 숲을 통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전거 코스, **슈맹 드라 뷔아셰르(Chemin de la Vuachère)**, 건축과 가든 디자인이 특별한 조화를 이루는 **몽르포(Mon-Repos) 공원**,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소바블랭(Sauvabelin) 공원**, 로잔과 레만 호수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에스플라나드 드 몽브농(Esplanade de Montbenon)**, 전설 가득한 울창한 나무가 가득한 **드낭투(Denantou) 공원**이 아름답다.

6. 루가노(Lugano)의 올리브 트레일
지중해 느낌 그윽한 루가노에 웅장한 뷰를 품은 올리브 세상이 펼쳐진다. "센티에로 델롤리보(Sentiero dell'Olivo)"라는 이름의 올리브 트레일이 있다. 3.3km 의 트레일로 루가노 호수의 웅장한 풍경이 펼쳐지는 지중해 풍의 지형을 풀어낸다. 카스타뇰라(Castagnola)와 간드리아(Gandria) 사이를 구불구불 이어주는데, 고대 올리브 나무숲을 지나 새 시대의 나무가 심어진 지역으로 이어진다. 2002 년에 단장된 트레일로, 올리브 나무 로고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18 개의 정보 패널에서는 역사, 식물, 올리브 경작, 올리브, 올리브오일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도 알아볼 수 있다. 카스타뇰라의 구시가지 시청사나 간드리아의 마을 위 주차장에서 트레일에 접근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꽃을 좋아하는 이들을 환호하게 할 **산 그라토(San Grato) 보태니컬 가든**, 루가노 도시의 허파라 불리는 **치아니 공원(Parco Ciani)**, 루가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산 미켈레 공원(Parco San Michele)**에서 루가노의 초록을 만날 수 있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